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5월 9일(금)

(음력 4월 12일)

Пятница

9 мая 2025 г.

№ 18 (1213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9일은 위대한 조국전쟁의 승리 날이다. 올해는 대조국전쟁 80주년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사할린 주지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방문

사할린 주지사 발레리 리마렌코는 승전일을 앞두고 지난 주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샤흐초르스크를 방문했다. 주지사는 현지 참전하고 있는 사할린 출신의 우수 장병들에게 '용맹'의 메달을 수여하고, 작전지역에 필요한4대의 쿼드바이크(ATV사륜구동 오토바이), 드론, 전자전 장비, 배터리 등을 전달했다. 또한 39 독립 소총 여단 전투원들에게 사할린주의 깃발을 증정했다.

또한 사할린주의 지원으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 현장을 점검하며 "사회적 제반시설 복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의 기차' 처음으로 도착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을 맞아 '승리의 기차'가 지난 6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역에 도착했다.. 이 이동 박물관은 노글리키·티몹스코예·스미르니흐·포로나이스크·마카로브·브즈모리예·돌린스크 등 7개 역을 거쳐 전쟁 유물, 사진, 개인 소품, 군용 장비(МС-2 전차 등)가 전시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사할린에서 '승리 기차'행사는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극동철도회사가 주최로 나섰다.

사할린주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승리는 세대를 잇는 가치"라며, "현재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들도 선조들의 용기를 이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관광객 수 신기록 달성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2024년 사할린주를 찾은 관광객은 27만 2천 명으로, 2017년 팬데믹 이전의 기록(26만 1천 명)을 넘어섰고, 2023년보다 11%가 증가했다. 사할린주 관광부 장관 아르쥘 라자레브는 "팬데믹 이후 이전 지표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요인으로는 국제 포럼 개최, '고르니 워즈두흐'스키 리조트 운영,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꼽고 있다. 2025년에 사할린주는 3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승리의 벽' 설치로 참전영웅 기려

"승리의 자원봉사자들" 운동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공원에 '승리의 벽'을 설치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후방 노동자 등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주민 누구나 이곳에 대조국전쟁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의 사진을 게시하며 추모할 수 있다.

"불멸의 연대" 사할린 지부장 안드레이 푸겐피로브는 "세대를 잇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5월 9일, 오늘 우리는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성스러운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에서 영웅적 용기와 용맹스러움과 불굴의 의지와 국민 단결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다 전장에서 전몰한 분들, 부상으로 사망하신 분들, 파시스트의 수용소에서 고통을 견뎌낸 분들, 최전선에서, 후방 노동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시며, 미래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꽃잎이 버티고, 이겨내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강인함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파시즘의 변명과 재현을 막아내기 위해 전쟁에 대한 진실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장병들은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조국의 국경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전장병들을 말과 행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모범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45년처럼 승리는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모든 참전용사들과 후방 노동전선의 참전자들과 사할린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승전일을 맞아 동포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전승절을 축하드립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정부, 공공건강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 논의

사할린주 주민의 공중보건 증진에 따른 5개년 프로그램을 부처 간 위원회 참가자들이 총결산하는 가운데 회의에서2030년 말까지 국내 지역에서 시행될 '장수하는, 활동적인 생활'국민기획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

지난 5년간 사할린주에서 건강 증진에 따른 시행책들은 연방차원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건강 안내자', '이동진료팀', '1-300'서비스 기획들은 전 연령대의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방식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정부와 그 범수행 기관들,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결과를 기준으로 사할린주는 전략주도층의 질적 생활의 평가에 따라 의료적 편의성 부문에서 선두이며, 또한 실질적인 근로능력 주민의 수에 있어서도 극동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주 공중보건센터의 엘레나 스톨라로와 수석 의사는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종합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3만4천656명에 달했다며 의사들

과 정신과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근로단체를 방문하여 비전염성 만성질환이나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수면 위생, 연례 건강검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기획 '장수 및 활동적인 생활'의 주요 목적과 과제에 대해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대행인 안톤 메체라킨은 주내 소매 주류 판매율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기획 시책이 개발되었고, 또한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를 계속 제거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주민의 사망률을 낮추어 2023년에는 평균 수명이 80세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확신을 표명했다.

2025년 의료 분야에 488억 루블리가 배정된 가운데 그중 303억 루블리는 지역 예산에서 지출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국민기획의 시행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이 기획의 일환으로 중앙약, 심혈관 질환 퇴치, 1차 진료의 현대화, 아동보건, 디지털 통합 핫라인 구축, 의료인력 제공 등 부문에 개발이 시행된다.

(주정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새고려신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5월 9일은 위대한 승리의 날 블라디미르 리: 위대한 조국전쟁의 영웅

올해 5월 9일 러시아에서 위대한 조국전쟁 승전 80주년을 기념한다. 이날은 매우 뜻깊은 날이며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후방 노동전선 참전자를 기리는 날이다.

나치 독일과의 전쟁 초기부터 소련의 고려인들은 나치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2011년에 신 드미트리, 박 보리스, 최 발렌틴 등 연구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사료를 분석한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의 소련 고려인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고려인 참전자 372명과 관련된 사료, 회고록, 신문기사 등이 수록됐다. 그중 대조국전쟁 참전영웅 리 블라디미르 스테파노위츠를 소개한다.

포병 근위대 상사 블라디미르 스테파노위츠 리는 1920년 8월 26일 사마라에서 태어났다. 한인 아버지는 서울 출신이었고, 러시아인 어머니 마트로나 레온씨예와는 트웨리주 출신이었다. 리 블라디미르는 1921년부터 모스크바에서 살며 전쟁 전에는 '에미트론'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했다. 1941년 11월 붉은 군대에 징집되어 모스크바 방공군에서 복무하며, 수도 방어에 참전했다.

1942년부터는 워로네즈·서남부·제1 벨로루시 전선에서 복무하며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했다. 1944년 크라신 명칭 제1 근위대 박격포·포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1945년 소위로 졸업했다. 1945~1946년에는 제328 근위군 박격포·포병연대에서 소대장을 맡았다.

1945년 6월 24일 승리 퍼레이드에서 블라디미르 리는 붉은 광장을

행진했다. 그는 2급 조국전쟁 훈장, '모스크바 방어' 메달, '독일군에 대한 승리' 메달 등을 수훈했다.

전후에는 '에미트론' 공장으로 복귀해 작업반장과 공장장으로 근무했다. 모스크바 공작기계 기술학교와 전 연방 철도통신 기술학교를 졸업했으며, '노동 용사' 메달 등 노동공로상을 수상했다.

승전 페레이드 참가자인 대조국전쟁 참전용사의 회고

"전선에 나간 것은 다른 공장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지역 징병위원회를 통해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방공전선에 배치받았습니다. 징집 장소는 학교였습니다. 이미 수업은 중단된 빈 교실이었죠. 무기 없이 민간복장으로 무릅까지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군복과 3라인 소총을 받았습니다... '포대기'라고 아세요? 다리에 감으면 자꾸 풀어져 내려오더군요..."

리 블라디미르는 스탈린그라드, 제1 벨로루시 등 전선의 주요 전투를 경험했다. "하리코브 근처에서 후퇴할 때 폭격을 맞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비행기가 저공비행으로 다가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생존 확률이 높았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는 여름 더위에 시체들이 부풀어 오르는 악취가...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기억입니다."

1943년 그는 동료 장교들의 추천으로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 "저를 믿고 신뢰한3명의 상관이 저를 보증해줬습니다. 50년간 당원으로 활동했죠."

1944년 크라신 포병학교에서 교육받게 된 그는 그 학교 학생으로서



리 빅토르. 1944년. 모스크바

1945년 6월 2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 승전 퍼레이드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당시 퍼레이드에는 각 전선군 통합연대, 국방인민위원회 및 해군 인민위원회 소속 부대, 군사 아카데미, 군사 학교, 모스크바 주둔군 등이 참여했다 - 편집자 주)."

"퍼레이드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우리를 정말 엄청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학교에는 특별한 훈련장과 자체 군악대가 있었죠. 6월 24일 날씨는 처음엔 좋았지만, 후에 비가 내려 추가로 계획됐던 시민행진은 취소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한 후, 소대별로 정렬했습니다. 소대 지휘관인 중위가 우리 모두를 점검했죠. 소대들은 대대

로, 대대는 연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자체 연대를 구성했죠. 우리 모두에게 '독일 승리에 대한 메달'과 '승전 퍼레이드 참가 증명서'를 수여했습니다. 우리 증명서는 장애인 수첩처럼 빨간색이었고, 전선에서 온 병사들은 황갈색 증명서를 받았습니다...보브첸코 소장이 지휘한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레닌그라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장화에는 박차, 군도, 사쉬카(러시아식 군도)를 차고 있었죠. 모든 것이 매우 축제 분위기였고, 장엄하며 정말 굉장했습니다! 레닌 묘소 위에서는 스탈린, 몰로토프, 베리야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후 그는 모스크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퍼레이드 참가 경력에 대해 주변의 의심을 받기도 했다. "군 징병위원회에서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리 블라디미르 참전용사가 말하였다.

블라디미르 스테파노위츠 리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삶은 용기, 인내, 모국에 대한 충성의 본보기이다.

(〈1941-1945년 위대한 조국전쟁 전선에서 소련 고려인들〉책에서 발췌)

이 모 저 모

'푸른 스카프', '카췌샤' 등 전쟁 시절의 노래,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울려 퍼져

5월 2일 금요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승리의 푸른 스카프'라는 애국적 플래시몹이 구성되어 탑승 수속을 하는 승객들, 마중 나온 사람들, 배웅하는 사람들이 축제 공연의 관객이 되었다. 공항의 한 지붕 아래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전쟁 시절의 노래들인 '전선으로 향한 길', '승리 후에 나는 돌아오리라', '카췌샤' 등이 울려 퍼졌다. 노래는 어린이들과 함께 한 '보이스 그룹'이 불렀다.

국제적 애국 행사의 참가자들은 공항에서 게오르기 리본과 푸른 스카프를 두루 나눠주었다. 이 스카프의 상징은 여성의 충실함과 소비에트 국민의 위업과 승리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 바로 여성들이 참전 장병들을 지원하고, 후방에서 일하며, 부상자들을 구조했다.

사할린주에서는 대조국전쟁 승리 80주년 앞두고 〈푸른 스카프〉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월 9일까지 진행하며, 음악 및 춤 공연을 비롯해 들것과 위장망 만들기에 따른 활동 교실도 열린다. 이외에도 이 기간에 행사 조직위원회는 쿠르스크주 주민을 위한 지원을 접수한다.

«Синий платочек», «Катюша» и другие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прозвучал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ятницу, 2 мая,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флешмоб «Синий платочек Победы». Во время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рейс пассажиры, встречающие и провожающие стали зрителями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Под сводами аэровокзала звучали знакомые с детства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Путь-дорожка фронтовая», «А после Победы, когда я приеду...», «Катюша». Исполнителями стали артисты продюсерского центра Voice Group, включая детей.

Участ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раздавали в аэропорту Георгиевские ленточки и синие платки. Эти символы олицетворяют женскую верность, подвиг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и веру в Победу. Именно женщины поддерживали воинов, работали в тылу, спасали ранен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ция «Синий платочек» проходит накануне 80-летнего юбиле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Акция продлится до 9 мая. Помимо музыкальных и танцев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й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созданию маскировочных сетей и носилок. Кроме того, все это время организа-

торы принимают посильную помощь для жителей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나톨리츠의 건강> 강습, 200명 이상 참가

5월 2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동계스포츠 종목 학교의 스키롤러 훈련코스에서 제8차 <아나톨리츠의 건강> 무료 야외 체력단련 강습이 시작된 가운데 개강식에 200여 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의 '브콘탁테(VK)'그룹이 전했다.

제8차 <아나톨리츠의 건강>기획 개강식에는 참가자들과 관객들을 위한 활기찬 오락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이후 모두가 다양한 변형의 일상적 체조에 돌입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최 측은 따뜻한 날씨 속에 15개의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편리하게 조율할 수 있다. 아침체조(아침 6시) 강습은 웬스카야 5번지 거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저녁 체조도 같은 곳에서 18시 30분에 진행된다.

일주일에 3번은 '고르니 위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로 산책을 하며, 일요일에는 일반적 체력단련을 진행한다.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открыли новый сезон «Здоровья от Анатолич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ятницу, 2 мая, на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е школы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восьмой сезон бесплатных тренировок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Открыти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сообщили в группе во «ВКонтак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ткрытии восьмого сезона проекта «Здоровье от Анатолича»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ждала ярка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сле этого вс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вседневным упражнениям в различных вариация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граммы объявили, что в теплую погоду проведут 15 тренировок.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сможет выбрать удобное для себя время и график. Занятия включают утреннюю(в 06:00) зарядку на улице Венской, 5 —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Вечерние тренировки здесь же с 18:30. Также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прогулки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 общефиз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독립 창작예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진' 극동 독립출판물 축제 개최

5월 초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야크'아트센터에서 '진' 문화, 독립출판물, 인쇄 실험을 주제로 하

는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에 작가와 화가, 출판업자를 비롯해 독립출판과 인쇄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모였다.

전시회에는 러시아의 36개 도시들과 다른 지역들에서 약 200여 개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그중에 사할린의 물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하고 독특한 작품들도 있었다. 전시회에서는 빨간 비늘을 가진 홍연어, 은은한 회색빛의 은연어와 가장 빨갈고도 아름다운 물고기인 왕연어의 찬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련의 찬란한 연어들 인쇄물은 먼 라트비아에서 전시회에 도착했다.

'진-진'축제의 주최자인 빅토르 스테판초브는 하바롭스크에서 독특한 창작 출판물을 가지고 온 가운데 샤프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로스토브에서는 이와 유사한 축제가 자주 열리는데 극동지역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번 그의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

'마야크'아트센터의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사할린의 화가들과 사진작가, 디자이너들에게 '진'문화를 소개했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읽고, 작품에 손을 대어 볼 뿐만 아니라 접힌 종이 첩 또는 사진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으는 데 있다. 이는 '진'이 될 수 있는 작은 부분일 뿐이고, 허용 범위는 저자가 결정한다.

'진'(:magazine의 축약어)은 인쇄된 형태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으로 저자에게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부여한다. 그리고 단시간에 누구나,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다.

이들간 '마야크' 전시관에서는 주요 전시회와 함께 개인 소장 미술 이미지 전시 및 발표가 진행되었다. 방문객들은 작가들과 만나 어떻게 그리고 무슨 동기로 그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알고자 했고, 작가들은 기꺼이 어떻게, 무슨 동기로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Самоп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стиваль самиздата «Зин-Зин»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ачале ма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енный зин-культуре, независимым изданиям и печатным экспериментам. Здесь встретились писатели, художники, издатели и все, кто увлечен самиздатом и печатной культурой.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или более двухсот работ из 36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 '호평' 상 수상

지난 4월 30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 적십자사 사할린 지부는 '이웃 돌봄' 비영리단체 연합과 팀첸코 재단이 후원하는 '노년' 알리양스와 공동으로 지역 〈호평(프리즈나니예)〉 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호평〉 상은 노인 및 장애인을 돕는 데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는 상으로 2025년에는 '돌봄 자원 봉사자'(18 - 55세), '노년 돌봄 자원 봉사자'(55세 이상), '사회공헌(비영리단체, 기업, 개인 사업가)' 총 3개 부문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회공헌' 부문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는 장기간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원봉사자도 많이 생기고, 합창단도 창립했다.

이날 림종환 시한인회장은 "이 상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표명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국립대,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학술원탁회의 개최

지난 4월 28일(월)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학술원탁회의가 열려 지역의 주요 역사학자들과 연구가들이 모였다.

이번 행사 사회를 사할린 국립대학교 러시아 및 세계사학과장이자 역사학 박사인 알렉산드르 와실렙스키가 맡아, 전문적인 논의는 높은 학술적 수준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사할린 국립대학교 부교수이자 역사학 준박사인 엘레나 리시치나가 북부 사할린 주민들의 후방 노동전선의 생활과 공동의 승리를 위한 이들의 기여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전쟁 시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노동으로 기여한 바를 집중 조명했다.

이어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부관장 대행이자 역사학 준박사인 진 율리아는 '가라후토 학살: 1945년 8월 남부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전쟁 막바지에 남부 사할린에서 벌어진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건들, 특히 한인들의 운명에 초점을 맞췄다. 진 박사는 사할린주 보안국 기록보관소에서 기밀해제된 문서를 통해 학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했으며, 이 사건이 일본의 식민정책 및 남부 사할린 사회의 붕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비극의 인도적 측면과 현



대 향토사 인식에 미친 영향도 다뤘다.

마지막 발표자로 역사 학자 니콜라이 위쉬넵스키는 남부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의 전투에 대해 심층분석을 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정책과 군사작전의 전개를 상세히 다뤘으며, 또한 사할린 향토박물관과 공동으로 집필한 '구조된 평화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본인의 책 출간을 알렸다. 출판기념회는 2025년 5월 7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학술원탁회의는 사할린 학계에 중요한 자리가 되었고, 향토역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지식 교환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본사 기자)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따뜻한 어버이날 행사 개최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는 본 단체가 운영하는 '75세+ 그룹'의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5월 3일(토) 만찬 자리를 준비했다.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한국의 중요한 명절이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천영곤 회장은 축사를 전하며, 각 어르신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행사는 새로이 단장된 시한인회 홀에서 진행되어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님으로 모신 어르신들은 천영곤 회장, 안 갈리나 부회장을 비롯해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따뜻한 초대에 감사



의 인사를 전하며, 항상 어른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제공)

〈상상의 놀이〉 과거와 미래의 만남의 장

5월 4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가 준비한 독창적인 발표 공연 〈상상의 놀이〉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적 기술을 접목시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공연은 디지털로 주인공이 가상의 세계에서 퍼즐을 조립하며 현실 세계로 돌아가려는 음악여행을 선보였다. 각 음악의 곡목들은 주인공의 모험 단계에 맞춰 구성되었으며, 영상과 특수효과가 완벽히 결합돼 생생한 몰입감을 안겨주었다.

〈상상의 놀이〉 공연 프로그램은 한민족 전통음악부터 현대의 히트곡까지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더해주었다. 특히 가야금, 단소, 사물놀이 등 전통 악기들이 현대적인 편곡과 함께 선보이며 한국 음악 유산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전했다.

이번 공연은 풍부한 음악감상의 기회였고, 한국 문화를 새롭고, 신선하게 이해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에트노스'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의 김 예브게니야, 강 안나, 김 안나, 박완순, 체오(조) 나탈리아, 최경순 교사와 신 율리아 과장의 노력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들은 사할린에서 한민족 문화예술 보존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는 분들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한민족문화예술과 선생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공연으로 체현시키는 작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

그래서 개최하는 공연마다 늘 만석이다.

이번 '상상의 놀이' 공연은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룬 독보적인 문화 행사로 꼭 관객들에게 큰 만족을 선사했다.

(본사 기자)

샤흐쵸르스크 학교에 소련의 전설적인 첩보원 김 예브게니 이름을 부여

사할린 보안국이 사할린의 샤흐쵸르스크 학교에 전설적인 정보장교인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 소련 영웅 수훈자의 이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5월 5일(월)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신테즈'학교에서 이와 관련 행사가 열렸다

라고 러시아 연방보안청(FSB) 사할린주 관리국이 전했다.

사할린 보안국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협력하여, 조국애의 훌륭한 본보기로 청소년 세대를 교육하고, 영웅의 기억을 오래 남기기 위해 샤흐쵸르스크의 '신테즈' 학교에 저명한 첩보원이자 소련의 영웅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의 영예로운 이름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사회 각계와 우글레고르스크 시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사할린주 보안국 대표, 국가보안기관 원로협회 사할린 지부 회원,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원, 우글레고르스크 시 행정부, 그리고 '신테즈'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1932년 한국 경상남도 거창군의 농가에서 태어난 김 예브게니 (본명 김용철)는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 어머니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1942년 가족은 사할린의 토로 마을(1947년 샤흐쵸르스크로 개명)로 이주했다. 김 예브게니는 7학년을 마친 후 기술자로 일하면서 야간으로 독학을 계속했고, 얼마 안 지나 다시 학교에 돌아와 9학년 반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1953년 소련 시민권을 얻었고, 1960년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학부(전공 일본문학)를 졸업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에 능통했으며, 1960년 소련 KGB 제1총국 특별예비대에 편입되었다.

1966년, 불법 정보요원으로 복잡한 정보 및 작전 상황을 가진 국가로 파견되었다. 그는 높은 전문성, 폭넓은 시야, 탁월한 분석 및 조직 능력으로 경험 많은 요원으로 인정받았다. 1989년까지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며, 직접 참여해 만든 자율적 불법 외국첩보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987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성과를 인정받아 소련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레닌 훈장, 적기 훈장, 적성 훈장, '조국 공헌' 훈장, '용기' 메달, '국가보안 명예 직원' 및 '첩보 근무' 배지를 비롯한 다양한 훈장과 메달을 수상했다.

그리고 1998년 모스크바에서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사할린보안국 부국장 드미트리 바얀진은 "최근 뛰어난 소련 및 러시아 정보 장교들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그중에는 우리의 전설적인 동향인이자 소련의 영웅, 명예 국가안보 장교인 예브게니 이와노위츠 김도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한 번 자신이 선택을 하면 끝까지 그 선택에 충실했으며, 러시아 국가 안보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학교의 이름으로 소련 영웅 김 예브게니 이와노위츠를 기리는 것은 진정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전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줄 것이며, 학생들의 역사 지식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도덕적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할린주 보안국의 원로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위츠 솔로예브는 "오늘 샤흐쵸르스크 학교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전설적인 소련 정보 장교 예브게니 김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정보기관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방보안청에서의 근무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영웅 예브게니 김의 운명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인생 경로를 설정하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서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고향 사람들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세대가 애국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정신으로 양성되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국가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그는 자신을 교육해준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 그는 학생들에게 불법 스파이가 되려면 자기 나라와 자신이 일하는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련을 조국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매우 의미있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연설했다..

이날 샤흐쵸르스크 '신테즈' 학교의 지도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참석자들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러시아연방보안청 사할린보안국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Школе в сахалинском Шахтерске присвоено имя легендар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разведчика Евгения Кима

МАОУ СОШ «Синтез» Шахтерска присвоили имя легендар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разведчика Героя СССР Евгения Ким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5 мая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о присвоении СОШ «Синтез» в Шахтерске почетного имени выдающегося разведчик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 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 23 по 26 апреля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стоялся 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я ведущ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китайоведение, корееведение и японоведени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видные российские востоковеды. Профессор МГИМО,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Ф в КНДР Валерий Сухинин рассказал о культурном языке КНДР и эволюц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о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осветил карьер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выпускников-востоковедов, а доцент НИУ ВШЭ Ульяна Стрижак поделилась опытом студен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в цифровом востоковедении. Второй день работы форума ознаменовался продуктивной работой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секций.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 круглый стол «Проблем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школе» в московской школе № 17. Директор Артур Луцишин и основатель школы с корейским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Нелли Эм тепло встретили гостей.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еще раз доказал, что в области эффе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принцип бесшов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из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начинается уже с детского сада и яркой нитью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все ступени образования.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Роза Янушковская и Ан Хан Ен (МАОУ № 9,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 билингвальных практиках в детсаду;

Эльвира Лим и Инна Корнева (СахГУ) — о дидактическом потенциале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Людмила Шелухаева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 межкультурном диалоге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лина Рыкунова (Лицей № 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 цифр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для учителей.

Жив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ведущих корееведов. Особенно впечатли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инкрустации перламутром, который прове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рганизовать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интерактив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Для студентов-корееведов и педагогов МГПУ, СПбГУ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екорированию палочек для еды перламутром.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впервы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кусством наджон чхильги - декорирование предметов перламутром.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было ограниченным 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которая закрылась в первые два часа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А 26 апреля студенты СахГУ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рхабо Абдурахмонова рассказала о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ях в корейских и таджикских пословицах; Виктория Ким — о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алерия Божок — о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емейных традиций в Корее. В составе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были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Пуса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торые обучаются в СахГУ по программе обмена. Ян Дживон и Ким Ухён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ами о культур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аспектах.

Форум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еще раз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что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сегодня — это весьма акту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пределяющее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СахГУ

ЮСМООК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Признание»

30 апре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Признание», учрежденной Сахалин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г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совместно с Коалицией НКО «Забота рядом» и Альянсом «Серебряный возраст»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Тимченко.

Премия «Признание» вручается активистам, НКО и бизнесу, которые вносят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помощь пожилым и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2025 году премия «Признание» была вручена в номинациях: «Доброволец заботы» (18-55 лет), «Серебряный доброволец заботы» (старше 55 лет), «Социальный вклад» (НКО, бизнес и ИП).

В номинации «Социальный вклад»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Награду за многолетнюю работу по поддержке пожилых людей, созданию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волонтер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луч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анизации Лим Ден Хван.

«Эта победа — результат нашей общей работы.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верил в нас и поддерживал наши инициативы!» — сказал Лим Ден Хван, принимая награду. (Наш корр.)

В 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прошла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4 мая 2025 года после пяти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усане прошла акция памяти —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риуроченное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Как сообщает Telegram-канал российского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в Пусане, в памят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объединились более сотни участников.

Торжества начались с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Затем колонна с фотографиями фронтовиков двинулась по аллеям живописного парка «АТЭС

Нару». Под звуки легендарных военных песен участники пронесли портреты своих предков, отдавших жизни за свободу Родины.

В акции памят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е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остав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усане. Впервые с 2019 года русскоязычная община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ублично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герое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этом формате.

К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БЕССМЕРТЯ ЛИЦА

Земляне, что же происходит с нами?
Опять возносятся к небу палачей,
Кто в сорок первом свастикой, мечами
В ад превратили тысячи ночей ...

Припев: И вновь в бою Бессмертный батальон ...
Он скован из особенной породы,
И не сошел с ума тот почтальон,
Что письма нёс с войны все эти годы ...

Дошли до нас из прошлого те строки,
Где бьёт набат бессмертный батальон:
У преступлений не сгорают сроки!
Спросите вы у поседевших жён ...

Припев: И вновь в бою Бессмертный батальон ...
Он скован из особенной породы,
И не сошел с ума тот почтальон,
Что письма нёс с войны все эти годы ...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бессмертие солдата ...
Пока мы чтим и помним имена,
Как воздух будет нам победы дата,
А землю нашу обойдёт война!

Припев: И вновь в бою Бессмертный батальон ...
Он скован из особенной породы,
И не сошел с ума тот почтальон,
Что письма нёс с войны все эти годы ...

Припев: И вновь в бою Бессмертный батальон ...
Он скован из особенной породы,
И не сошел с ума тот почтальон,
Что письма нёс с войны все эти годы ...

ТЭХО ЧАН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02.2017г

Круглый стол, посвященный события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шел в СахГУ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посвященный события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торый собрал ведущих историков и ученых региона. Модер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российской и всеобщей истории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евский, чья эксперт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обеспечила высокий научный уровень дискуссии.



Первой с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СахГУ Елена. Лисицына, представившая результаты сво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о жизни в тылу и вкладе жителей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общую победу. Ее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трудовым подвигам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тяжелые военные годы.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о.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Резня на Карафуте: трагедия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освещающий сложные и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произошедшие на юге острова в завершающие дни войн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судьбам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казавшегося в эпицентр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того периода. Спикер рассказала о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переданных музеем из Архива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оливают свет на причины и последствия резни, связывая их с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ой и окончанием распада обществ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докладе также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гуманитарные аспекты трагедии и ее влияние на соврем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истории региона.

Завершил встречу историк Николай Вишневский, представив глубо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и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ях. Его исследование позволило детально рассмотреть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и ход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в регионе.

Доклады спикеров позволили взглянуть на военные события не тольк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но и через призму местной истории, зачастую скрытой за привычной хронологией учебников.

Круглый стол стал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для сахалинского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едоставив площадку для обмена знаниями и открытой дискуссии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рег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Наш корр.)
(Фото: СахГУ)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стал Ли Чжу Хо

В полночь 2 мая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Ли Чжу Хо приступил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К. Это произошло после двух отставок, последовавших накануне. В середине дня 1 мая Хан Док Су заявил об отставке с постов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оздно вечером в тот же день Чхве Сан Мок подал в отставку с должности вице-премьера, министр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Это произошло за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до того, как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должно было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ходатайство об импичменте. «Я извиняюсь перед народом за то, что не могу продолжать ис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в тяжёлых внутренних и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Чхве Сан Мока,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Хан Док Су, которы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исполнял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до конца суток 1 мая, немедленно принял отставку Чхве Сан Мока.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У Вон Сик остановил процедуру голосования по ходатайств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Перед началом голосования депутаты от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окинули зал заседаний в знак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предложения об импичменте главе минфина, выдвинутог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Чхве Сан Мок должен был взять на себя временное исполн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Верховный суд отменил оправдательный приговор Ли Чжэ Мёну

1 мая Верховный суд РК отменил оправдательный приговор кандидату в президенты страны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у и вернул его дело на повторное рассмотрение в Высокий суд Сеула. Дело Ли Чжэ Мёна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в Верховном суд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рокуратура обжаловала решение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суда, отменившего приговор суда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к одному году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с отсрочкой исполнения приговора на два года. С него были сняты обвинения в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об избрании публич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коррупци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 районе Пэкхён-дон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даче ложных показаний в суде первой инстанции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данного дела. Однако Верховный суд признал, что для отмены приговора не было достаточных оснований.

КНДР выразила поддержку «многополярному» мировому поряд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выступает за установление независимого и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ового порядка, свободного от господства, подчинения и гегемонии». Как сообщило 2 ма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иче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ак Ён Иль, выступая на Треть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нтифашистском конгрессе в Москв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спользуется своим суверенным правом на самооборону от планов врагов по возрождению фашизм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одчеркнул Пак Ён Иль. В конгресс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30 апрел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оенные делегации стран-союзников России, включая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Белоруссию и Вьетнам, военные атташ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более чем 40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групп,-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РК прошли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5 мая,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во все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буддистских храмах, в том числе, в храме Чогеса в Сеуле, главном храме крупнейшего буддийского ордена Чоге, прошли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т день Будде исполнилось 2569 лет.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храме Чогес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глава ордена Чоге Чин У 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Чжу Хо. Орден Чоге объявил лозунгом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в этом году такие слова: «Мир миру, сострадание сердцу». В своём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м обращении глава ордена Чоге Чин У сказал: «Истинный путь к мудрости - отбросить конфликты и вражду,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и жить в гармонии», и призвал к интеграции общества.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у Хо отметил в своей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и: «Среди сурового течения истории давайте откроем путь к объединению 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ю, унаследовав учение Будды о сострадании 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и».

Объём онлайн-шопинга побил в марте новый рекорд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К,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 мая, объём торговых операций в интернете составил в марте текущего года 22 трлн 42 млрд вон (15 млрд 65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2,6%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максимальный меся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всю историю ве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с января 2017 года. Оплата услуг на доставку еды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4,6%, продаж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напитков на 9,8%. Доля покупок, оплаченных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ых устройств, выросла на 1,6%, составив 76,9% общего объёма онлайн-шопинга.

RKI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Кигай Николай Фёдорович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7)
27 сентября 1942 г.
Здравствуйте, родные Алёша, мама, Инго!

Пишу вам со станции г. Ярославля. Еду в действующую армию. Из Вологды я отправил вам 2 посылки с моими личными вещами, перевёл вам 2970 рублей денег...

Моё самочувствие и настроение прекрасное. Единственно, о чём я беспокоюсь — это о вас. Я ведь не знаю — может быть Алёша тоже в Армии. Я даже не знаю, получили ли вы мои письма, телеграммы и переводы. Постараюсь писать вам почаще. Обо мне не беспокойтесь. Иду воевать с проклятыми немцами.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ведь на фронте остаются убитыми. Думаю, что останусь жив.

Николай, г. Ярославль
6 октября 1942 г.
Здравствуй, Ингуша!

Пишу тебе из фронта, из Действующей Армии. Живу сейчас в землянке. Наша часть готовится к битве с фашистами. Я не подкачаю, убью десятки фашистов, прежде чем они меня убьют или ранят....

Николай. 875 полевая почта, часть 195.
Ноябрь 1942 г.

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ама, Инго, Алёша!

Привет вам с праздником и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Ингуши. Я отпраздновал день рождения милого сына чарочкой вина с товарищами.

Я по-прежнему жив, здоров, бодр, вообще чувствую себя прекрасно. Вообще я доволен своим здоровьем. Я не болел ни в условиях Арктики, ни сейчас — в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Мы уже получили новое зимнее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Работаю я в штабе части. Пока с немцами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но готовимся задать «немцам перцу». Я уже привык к раскатам орудий и грому взрыва бомб. Будем крепко бить фашистов и погоним его. Ждём только приказа.

Я от вас уже давно (более 3-х месяцев) не получаю никаких вестей. Это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меня тревожит. Не беспокоюсь о здоровье мамы.

Инго, пиши чаще письма. Пиши, как учишься, как работает Алёша, или, может быть, Алёша тоже на фронте. Получили ли от меня справку Воинской части, чтобы вы смогли на основании этой справки получ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как семья красноармейца.

Напишите, как и где живут Алёша и Людя, Валя с Аркашкой, Вера Капитоновна.

Передайте всем родным и знакомым боевой красноармейский привет с фронта.

15 ноября 1942 г.

Привет, дорогой сынишка Инго! Сегодня, наконец, получил от тебя письмо, написанное тобой 25 октября. Очень обрадовался, потому что от вас вообще я не получал писем давно. Я живу прекрасно. Живём, конечно, в землянках, но тепло и уютно. Мы получили уже всё зимнее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 новое, тёплое, удобное и прочное. Так что одеты мы очень хорошо, никакие морозы не страшны. Наша часть пока ожидает приказа командования, чтобы идти в наступление на фашистов. Бить будем крепко, и на этот раз фашистов выгоним из советской земли. Инго, ты пишешь, что отличник

учёбы. Я хочу похвастаться, что тоже отличник здесь, в военном деле. Твои подарки Красной Армии если я не получу, то получит кто-либо другой. Мы здесь отпраздновали 25-ю годовщину Октября хорошо. Пили даже вино. Инго, пиши чаще

письма. Твой привет я передал своим товарищам, бойцам и командирам. От них тебе тоже большой привет. Твой отец Николай.

13 декабря 1942 г.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Ингуша! Моя жизнь пока не изменилась. Жду с нетерпением, когда пойдем в бой. Ты, наверное, читал в газете, что наши войска на Сталинградском и Центральном фронте пошли в наступление и громят фашистов. На нашем фронте мы пока не пошли в наступление, но тоже ждём приказа. И когда пойдём, то будем бить фашистов так же крепко, как их бьют на других фронтах. Пиши чаще письма. Напиши, как живёшь, учишься, че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в школе. Твой папа Николай.

15 и 20 марта, 4 апреля и 1 мая 1943 г.

Письма из госпиталя (Полевая почта 72475).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Ингуша! Я пока нахожусь ещё в госпитале. Через недельку уже выпишусь и пойду снова в часть. Только не знаю, в прежнюю часть или в другую. Самочувствие моё прекрасное. Я только беспокоюсь о вас. Хотя вы в письмах ко мне не пишете, что вам там тяжело, но я знаю, что вам приходится много тяжелого переносить. Я восхищаюсь тому мужеству, с каким бабушка, ты и все другие переносите все тяготы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Но ничего, как фрицы поганые ни пытаются держаться крепко, а всё-таки скоро их побьём. Я соскучился по вас. Ведь уже 3 года я вас не вижу. Передай привет всем. Особый привет бабушке. Твой отец Николай.

Я здесь в госпитале ещё встречаю 1 мая. Здесь такое ко мне хорошее, чуткое отношение, что я только полон благодарности ко всем людям, окружающим меня. Вчера мне объявили даже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о приказу за несколько лекций, прочтённых мной персоналу госпиталя и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здника. Временами даже забываю, что я на фронте, лежу в полевом госпитале. Но на днях уеду в часть, где идут бои. Мои мысли и настроения омрачаются единственно от того, что я далёк от родных, что я не могу вам помочь в вашей трудной жизни. Думаю, что вы мужественно перенесёте все тяготы войны и выйдете из этих испытаний победителями, как и я и вся наша Красная Армия и вся Родина выйдет победителем из великих испытани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иколай.

17 мая 1943 г.

Здравствуй, дорогой Ингуша! Сегодня из госпиталя прибыл обратно в свою часть. Самочувствие моё прекрасное... Беспокоюсь, как вы живёте, всё ли в порядке. Не обижают ли в чём-нибудь. Как прошёл учебный год у тебя? Как здоровье и настроение у бабушки. Инго, ты



напиши мне подробно о бабушке, о том, как вы живёте, как питаетесь. Получаете ли помощь как семья красноармейца-фронтовика... Передай всем мой горячий фронтовой привет. Твой папа Николай.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И.Н. Кигая (г. Москва).
Автопортрет Н.Ф. Кигая Волховский фронт. Август 1943 г.
Подпись на обороте автопортрета:
«Сыну Кигая!
Этот портрет он нарисовал сам себя, смотрел в маленькое зеркало. Портрет нарисовал за 3-4 дня до смерти. Посылаю Вам на память о Вашем отце. Я сегодня тоже иду в бой, возможно, тоже не буду жив.
Друг Вашего отца Гвоздев Павел Васильевич».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И.Н. Кигая (г. Москва).

Полевая почта 77639.
8 июля 1943 г.
Привет из фронта.

Сегодня получил 4 письма от родных и друзей. Это для меня целый праздник. Я живу по-прежнему. Здоров, бодр, самочувствие прекрасное. Работаю много. Работа моя сводится к тому, чтобы лучше и больше уничтожать проклятых немцев.

Инго в письмах просил описать боевые эпизоды. Но это не всегда возможно и удобно в письме. Вот когда вернусь домой — расскажу. А вообще говоря, у нас примерно то, что пишут в газетах. Каждый боец и командир горит желанием скорей уничтожить и изгнать фрицев. Мы к этому прикладываем все наши усилия.

Мне очень жаль старую мамашу. Сколько она страдает. Надо, чтобы она дожила до той счастливой минуты, когда я вернусь с победой домой. Пишите мне чаще. Ведь ваши письма для меня радость. Николай. (Из книг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 Д.В.Шин, Б.Д.Пак, В.В.Ц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первые встретили «Поезд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был «Поезд Победы». Сотн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ишли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й вокзал,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 музей на колесах. На Сахалине акция проведена впервые.

«Поезд Победы» — это инсталляция, размещенная в составе поезда, который посетит ряд городов страны. На Сахалин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Цель проекта — сохран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е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фотографии, документы и личные вещи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Все это помогает посетителям ощутить атмосферу военных ле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вою общность с предками, которые отстояли страну в схватке с фашизмом.

На Сахалине «Поезд Победы» уже побывал на станциях Ноглики, Тымовское, Смирных, Поронайск, Макаров, Взморье и Долинск. И вот, окутанный клубами пара, украшенный еловыми ветвями и флагами, старинный паровоз с несколькими вагонами под звуки во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прибыл на 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преддверии 80-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оезд Победы» напоминает нам о страшных испытаниях, которые выпали на долю наших отцов и дедов. Они защитили Родину, отстояли право сво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на будущее.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Победу внесл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и. Они эвакуировали людей и предприятия, под бомбами доставляли боеприпасы и пополнения, вывозили раненых. Среди тех, кто сражался на фронте и трудился в тылу, немало наших земляков. Сегодня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 люди почтенного возраста. Но в их сердцах по-прежнему живет сила, которая сокрушила фашизм. Важно, что ее унаследовали последующие поколения. Современные герои — участник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 продолжают дело своих предков, защищают рубежи России.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не утрачена. Значит, Россия была, есть и будет свободной, независимой и процветающей. С праздником, земляки! С наступающим Днем Победы!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Собравшихся также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Вячеслав Скрипка.

Экспозиция поезда вызвала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Посетители внимательно рассматрива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е на открытых платформах вооружение: тяжелый танк ИС-2,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орудия, а также автомобиль ГАЗ-76. Работники поезда в военной форме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ровели экскурсию по передвижной выставке.

Ирина и Тимофей Виниченко пришли встречать «Поезд Победы» с двумя детьми.

Мы всегда отмечаем День Победы. Мы чтим этот праздник и историю Родины.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это ежегодное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Мы хотим, чтобы они поняли смысл Дня Победы, и потом поделились этим знанием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 сказала Ирина Виниченко.

Важно, чтобы дети знали и уважали предков, которые отдали ради них свои жизни. Поэтому мы сегодня здесь, — отметил Тимофей Виниченко.

Мне всегда нравились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егодня я пришел посмотреть на «Поезд Победы» и на боевую технику, — сообщил сын Ирины и Тимофея Макар.

Юнармеец Даниил Гарипов признался, что приближающийся священный праздник вызывает у него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за страну.

Скоро 80-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Поезд, который мы сегодня встречаем, важный символ. По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на фронт везли технику, оружие. А потом поездами возвращались домой сами солдаты-победители, — сказал Даниил.

В ближайšie годы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в новое жилье переселят еще 487 семей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мэро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митрием Любчиновым. Ключевыми темами совещания стали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за последние 4 год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оящие план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ремонту дорог.

В рай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жилья. С 2020 года расселили более 55 100 кв. м. жилья, переселили 995 семей.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введены 16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более 48 500 кв. м. жилья, что позволило обеспечить жильем 780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два новых дома сдадут в селах Правда и Костромское. С 2026 по 2027 год построят еще 13 тысяч кв. м. жилья,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улучшат еще 487 семей.

В этом году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также продолжится работ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капремонт уже охватил 44 двора, ямочный — 295 дворов. В этом году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дут еще 22 территории, ямы отремонтируют в 70 дворах.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ожидается в 41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м доме по 78 конструктивам.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дут 16 подвалов.

С 21 года мы усиленно ремонтируем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Это фасады, кровли, а также дворы и подъезды. Мы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у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ь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дворов. Уже разыграли 21 из 22 тендеров,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Все подъезды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важно все дворы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также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чтобы все было в порядке и внутри, и снаружи. Обратит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ремонт фасадов. Городской облик уже сейчас меняет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появляется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завершенность. Продолжайте работу, — поддерж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роме того,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ят ко второму этапу капремонта улицы Советской,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улиц в райцентре. Оставшиеся 1,5 км полотна должн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ем программу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аварийным до 2022 года. Работа идет по плану.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емонту дорог. Асфальт хороший, с подрядчиками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эр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Ва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не латать одни и те же дыры каждый год. Если после ремонта возникают какие-либо проблемы в течение гарантийного срока, подрядчик должен устранять их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за свой счет,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иоритет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в работ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ост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их семей. Сегодня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роживают 604 таких семьи. Всем оказывается всесторонняя помощь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Также район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губернаторском проекте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Инициатива помогает не только оперативно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людям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но и получа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населения, решать насущные вопросы. Район включился в работу и по проекту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Мы обходим каждую квартиру, задаем вопросы, что волнует жителей, какие есть задачи, формируем наказы. Мы с вами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в чем нуждаются люди.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 это не только про будущих мам, но и про настоящих. Если вы не будете ухаживать за семьями, которые рожают и воспитывают детей сегодня, никто не поверит, что вы будете это делать в будущем. Женщина — не только мать, но и часть труд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Мы приняли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мер, это программы п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связанные с карьерным планом, чтобы женщина не потеряла квалификацию, не отрывалась от коллектива, чтобы нянечка была, чтобы женщина могла быстрее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Это важно, —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должится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культурной и спортивной жизн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В этом году в Холмске посл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ткрылся бассейн. Заполняемость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достигла 80%.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хоккейного корта в селе Правда, «Сквера отдыха» в Яблочном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например,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арка. Зеленая гавань» и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квере имени Степана Валентеева. Вырос объем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Растет доходная часть бюджета.

Наконец,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обратился к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с просьбой поддержать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на предстоящих выборах главы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м году заканчиваются мои полномочия. Прошу вашего согласия, вашей 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внов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ыборах на должность мэра.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амбициозные задачи. Будем решать, — сказал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Поддержим. Видим изменени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 подытож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Более 30 тысяч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хватит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хватит более 30 тысяч детей. Вопрос о подготовке к ней под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фициально летня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стартует 1 июня. Однако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начнут принимать детей уже в конце мая.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дена нов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бойцов, погибших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Для детей павших воин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есплатные путевки в загородны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лагер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Эта инициатива — знак глубоко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ероям, которые отдали жизнь за Россию. Мы должны помочь их детям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стать достойными гражданами. И, в частности,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сти летние каникулы с пользой и удовольствием, набраться сил и получить яр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и прежде, работает механизм компенсации семейных затрат на летний отдых. 85% от средней стоимости путевки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лагерь будет оплачено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Если ребенок относится к категории лиц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затраты возмещаются полностью.

В этом году вы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профильных смен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тех Алаид». Они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м центре «Восток», а также в лагерях «Лесное озеро» и «Юбилейный». По поруч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в палаточном лагере «Авангард» пройдут профильные смены «Орлята России» и «Лидеры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На базе палаточ-

ного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ая Звезда» организуют профильные смены «Сила России» для детей, состоящих н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м учете.

Третий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ует летний отдых детей из Шахтерс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Шефство над этим городом наш регион взял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ланируем летом отправить 500 детей в лагерь «Мир» на побережье Азовского моря, — отмет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получили задание: тщатель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блюдение в детских лагерях требований пожарной,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Побед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в ДНР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бойцами СВО

В преддверии Дня Побед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ывал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в Шахтерске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награждении отличившихся в ходе СВО островных бойцов, передал им необходимую технику, а также посетил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на подшефной территори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военнослужащим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отличившимся бойцам медали «За отвагу»,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а также ценные подарки на память.

Братья, мы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и, чтобы поздравить вас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Победы! Сахалинцы передают технику, которая вам нужна, которую вы просили. Мы также привезли вам приветы от родных, от всех земляков. Мы гордимся вами и верим в общую Победу! Желаем вам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вернуться к свои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вас очень ждут, — обратился к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губернатор.

В этот раз бойцам доставили 4 квадроцикла. Они применяются в зоне спецоперации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в труднопроходимых местах: на квадроциклах удобно вывозить раненых, техника позволяет хорошо маневрировать и с большой скоростью доставлять боеприпасы.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также получили РЭБ-рюкзаки, дроны, аккумуляторные батареи. Кроме тог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арил бойцам 39 отдельной мото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фла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зоне СВО у нас развернут полевой музей, где находятся трофеи. И мы с гордостью развернем фла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аренный губернатором. Он будет напоминать нам о родном крае. Это памятный знак, отличающий нас как воинов-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 поделился гвардии майор Максим Маширук.

Концерт для бойцов дали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Композитор Георгий Зобов рассказывал, что приезжает в ДНР уже в девятый раз с авторским репертуаром.

Для меня важно дарить землякам тепло малой Родины через свои песни. Приятно слышать от бойцов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Это бывает после каждого концерта. Мы с радостью помогаем ребятам отвлечься от солдатских будней, — рассказал музыкант.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Шахтерск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ывал на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ах, где ведутся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и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силами региона-шефа.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доложили, что в детском саду №3 «Елочка»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ены окна 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откосы, выполня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кровли с заменой шифера на профлист, заменена канализ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продолжится ремонт в прачечной, где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о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Мы безмерно благодарны за такую помощ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акой объем работ нам не под силу. Наш детский сад был открыт в 1976 году,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учреждению 50 лет, и это первый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Если все работы будут идти в таком темпе, то к 1 августа начнем снова принимать детей, — поделилась директор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Елена Стойко.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ценил ход работ в школе № 19, где ремонтируют фасад и входную группу.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Людмила Хрущев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губернатора за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обучения шахтерских ребят.

Я считаю, что именн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первоочередно. В городе чисто, по улицам гуляют люди, маленькие дети — это и есть мирная жизнь, которую мы возвращаем вместе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2025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может провести капремонт в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ах, установить 6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ставить новую мебель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социальные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а также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крыши 7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жилых домов.

Ту помощь, которую Сахалин оказывает Шахтерску с 2022 года, трудно оценить. Сегодня мы побывали на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ах. Кроме этог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ин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сезону в республике — это ремонты фасадов и крыш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Андрей Черто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에 남은 이름들… 광주 고려인마을, 귀환사 강좌

최상구 대표 초청 인문강좌
강제동원 · 차별 · 귀환운동 조명

광주 고려인 마을이 지난 4월 19일 '사할린 동포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주제로 인문 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의에는 지구촌 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가 나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부터 귀환 운동과 제도적 과제까지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짚었다.

최 대표는 "사할린 동포란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 이주하거나 출생한 한인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을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고 정의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돼, 탄광과 비행장 건설 등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해방 이후에도 이들의 귀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소련은 노동력 유지를 이유로 귀국을 거부했고, 일본은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적 논란 속에 수많은 한인이 귀향하지 못한 채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갔다.

당시 강제 동원은 '2년만 일하면 된다', '한 집에 한 명은 꼭 가야 한다'는 식의 회유와 압박 속에 이뤄졌으며, 해방 이후에는 소련 내에서 '적성국 국민'으로 분류돼 이주와 취업, 승진, 가족 유지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최 대표는 1958년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 약 1천 명이 일본으로 귀환한 사례, 박도학·이희팔·심계성 등이 결성한 '화태귀환 제일 한국인회' 활동, 편지 교류를 통한 귀환 희망자 명단 정리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사할린 동포들의 귀환 운동을 전했다.

지구촌 동포연대는 2006년부터 사할린 현지 실태조사,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19일 고려인문화관 주관으로 고려인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사할린동포 이주와 귀환의 역사'를 주제로 인문강좌를 개최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제공

구술 기록, 묘지 조사,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동포 사회의 기록을 축적해 왔다. 2007~2011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묘지에서 한인 묘 1,593기를 확인했고, 2014년부터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제작·배포하며 문화적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2020년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 대표는 "현재 사할린 동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구분해 다루는 이원화된 법체계는 제도적 혼선을 낳고 있다"며 "통합적 법 개정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Школе в сахалинском Шахтерске присвоено имя легендар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разведчика Евгения Ким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4)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с целью увековечения памяти Героя и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на лучших примерах проявления любви к Родине.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поддержан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и Собранием депутатов Углего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рались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ле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енсионеров (ветеранов)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дминистрация Углегор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 также руководство, учителя и ученики СОШ «Синтез».

Будущий выдающийся советский разведчик Ким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родился в 1932 году в городе Кочан (нынешняя провинция Кенсан-Намд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При рождении получил имя Ким Ен Чер. Отец рано умер, и детей в одиночку воспитывала мать. В 1942 году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в поселок Торо (в 1947 году переименован в Шахтерск). Ким окончил семь классов школы и ушел работать техником, занимаясь при этом вечерам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скоре его вернули в школу, приняв в девятый класс. В 1953 году Ким получил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В 1960 году окончил восточный факультет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японская филология». Владел японским, корейским, английским и испанским языками. В 1960 году зачислен в особый резерв Первого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ГБ СССР.

В 1966 году в качестве разведчика — нелегала выведен в страну со сложной агентурно-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Зарекомендовал себя опытным работником, отличавшимся высок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ом, широким кругозором, хорошими аналитическими и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работал до 1989 года. Успешно руководил созданной при ег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автономной нелегальной резидентурой.

За достигнут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служ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явленные при этом мужество в 1987 году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ами Ленина,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Красной Звезды,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медалью «За отвагу», нагрудными знаками «Почет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 службу в разведке»,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знаками и медалями. Трагически погиб в Моск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ДТП в 1998 год.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новятся достоянием

гласности имена выдающихся совет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разведчиков, среди них наш легендарный земляк,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очет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 Ким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Человек необыкновенной судьбы, который однажды сделав свой выбор, остался верен ему до конца, и внёс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 дело укреп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Увековечивание памят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има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в названии школы всегда будет напомина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хранить и передавать память о настоящих героях,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исторических знаний учащихся, окаже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Баяндин.

«Сегодня школа Шахтерска приобретает новый статус. Убежден, что присвоение данному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имени легендар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разведчика Евгения Кима позволит школьникам глубже изучить историю спецслужб и заинтересоваться службой в органах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мер судьбы нашего Героя Евгения Кима поможет молодежи правильно проложить свой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и найти себя в служении Отечеству. Горд, что смог стать частью этого важного события. Наши дети должны знать и помнить своих земляков. Ведь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воспитывалось в духе патриотизма, любви и уважения к Отечеству, ценило мир, делало все возможное для процветания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выступил ветеран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улоев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Он всю жизнь служил той стране, которая дала ему образование. Я читала, что однажды он сказал своим ученикам, чтобы быть разведчиком-нелегалом, надо любить свою страну и ту, в которой ты работаешь. Я уверена, что родиной он считал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Сегодня очень знаковый и приятный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ень, потому что м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героев», — обратилась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Руководство, педагоги и учащиеся СОШ «Синтез» Шахтерска поблагодарили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за оказанное доверие.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ы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일본, 쿠릴 해역 다시마 조업권료 러시아에 50만 달러이상 지급

4월 30일(수), 러시아와 일본이 남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 영토)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민들의 다시마 채취를 허용하는 연간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번 조업 할당량은 작년보다 336톤 줄어든 3천24톤에 달하여 이에 일본 측은 러시아에 작년보다 803만 7,700엔 이 감소한 약 505,000 달러(약 72,333,000엔)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 <홋카이도 신문>이 전했다.

협상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일본 측에서는 홋카이도 수산업협회 부회장 야마구치 슈지가, 러시아 측에서는 주일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이자 연방수산청 대표인 바집 쿠나예브가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소(小) 쿠릴 열도에 속하는 시그날니 섬(일본명 가 이가라 섬) 인근 해역에서의 다시마 채취 조건을 규정한 가운데 조업 시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홋카이도 수산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쿠릴 해역에서 다시마 채취에 나서는 어선은 183척으로, 2024년보다 12척 감소했다. 또한 러시아 측이 지급하는 수산 분야 실험연구 장비 지원비는 작년과 동일한 350만 엔으로 유지된다.

한편, 시그날니 섬 인근 해역에서의 다시마 채취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은 196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섬은 종종 양국 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쿄는 남부 쿠릴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이를 '북방 영토'라 부르며 이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감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장, 세계한인 총연합회 주최 첫 해외 역량강화 세미나 참석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5.1.~5.2.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총연합회 대륙별 한인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축하 및 정책 강연을 통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타 국가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의 후원 하에 세계한인총연합회가 해외에서 최초로 개최한 한인회 역량 강화 세미나로, 베트남 주요 동포 단체장을 비롯해 재일민단, 아시아, 미주, 유럽, 캐나다, 대양주, 중남미 등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첫날 개회식에서 "전 세계 한인사회는 3~4세대까지 빠르게 세대교체가 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한인회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청은 해외 700만 동포들과 국내 정착하는 약100만여명의 동포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전세계 한인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인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청장은 동포들의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세미나 둘째날에는 이 청장이 직접 '우리나라 재외동포 정책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현재 재외동포청의 핵심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강연했다. 강연에서는 이스라엘, 중국, 아일랜드, 인도 등 주요국의 재외동포 정책과 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및 민간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 청장은 하노이 한인타운인 미딩 지역을 방문해 동포 소상공인의 현장을 둘러보고 현안을 청취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천안시, 사할린 이주동포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충남 천안시보건소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4월 28일 사할린 이주동포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건강을 잇는, 함께하는 이음'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수지구에는 총 42가구, 64명의 사할린 이주동포들이 거주해 있으며, 대부분 고령층으로 만성질환, 노인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매월 찾아가는 이동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23가구 3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치매예방관리, 퇴행성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강사를 초빙해 미술 활동과 원예 치유 등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청타임즈]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Среди них — смелые и необыч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дохновленные сахалинскими водами. Здесь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яркие изображения нерки с аллой чешуей, скромного серебристого кижуча и чавычи — самой красной и красивой рыбы.

Яркое собрание лососевых прибыло на выставку из далекой Латвии.

Организатор фестиваля «Зин-Зин» Виктор Степанов привез уникальные автор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 Хабаровск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добные фестивали часто проводя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Москве и Ростове, н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х почти нет. Поэтому его визи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Специалисты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впервые познакомили островных художников, фотографов и дизайнеров с культурой «Зин». Их главная цель — привлеч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чтобы те могли увидеть, почитать и потрогать работы, а также понять, что бумажная гармошка или фотоальбом — это лишь малая часть того, во что «Зин»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Границы дозволенного определяет сам автор.

Зин- это выражение идеи в печатной форме, предоставляющей полную свободу автору. Создать его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в любом месте и з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Помимо основной экспозиции на площадке «Маяка»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роходили презентации и арт-стоки. Гости 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с авторами, узнать, как и зачем создаются их работы. Авторы охотно делились своим опытом, объясняя, как и зачем они создают эти работы.

4월 <러시아의 물> 행사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 300명 이상 참가

<러시아의 물> 전국 환경보호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에서 7개의 행사가 열린 가운데 300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사할린주 환경보호부가 전했다.

<러시아의 물>행사는 세웨로-쿠릴스크, 네웰스크 지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은 저수지 주변을 청소하며, 쓰레기들과 흩어진 나뭇가지들을 수거했다.

4월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진행된 환경정화 행사 결과 물가 주변 4km가 깨끗이 청소되어 62m³의 쓰레기가 매립지로 이송됐다. 환경보호부는 '이러한 환경정화 행사는 우리 주변 환경의 상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가운데 환경보호 문화 조성을 촉진한다.'고 전했다.

주목할 것은 <러시아의 물>행사는 <환경보호의 증진>국민기획에 포함된 <러시아의 물>연방기획의 일부라는 점이다.

Более 3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Вода России" в апреле

На Сахалине в апреле состоялось семь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экологической акции "Вода России".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300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эк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ция "Вода России" прошла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и трудились на берегах водоемов, собирали мусор и древесный хлам.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апреле очищено более 4 км береговой полосы водных объектов. На полигоны вывезено свыше 62 кубометров мусора.

—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не только улучшению состоя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о и формирова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 отмет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экологии.

Отметим, акция "Вода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ода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нацпроект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한 여성, 120회 생일 기념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계선상에 있는 중국의 헤이룽장성 지시시의 최고령 여성 주민이 120세를 맞았다. 사실 그녀는 지시시에서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여성이다. 공판하는 지난 4월 24일에 120회 생일을 맞았고, 그

녀의 연령만큼 도시도 커서 사람들은 그녀를 '지시의 엄마'라 부른다. 지시시 지역 방송에 따르면 공판하는 이 도시의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16년간 이 여성은 돌봄이 필요했지만 이전까지는 홀로 사는 것을 선호했다.

현재 그녀는 큰조카와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친척들은 그녀가 항상 추위하여 벽돌과 진흙으로 만든 중국식 난로인 '캉'에서 잔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녀의 오랜 습관이기도 하다. 현재 공판하는 그녀를 위해 가족이 요리하는 오직 쌀죽만 먹을 수 있고, 중국 전통 만두도 좋아한다고 한다.

공판하는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어 다섯 아들과 두 딸이 있다. 자녀들 모두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증손주들은 홀어저 살고 있다.

Старейшая жительница планеты отметила 120-летний юбилей

Старейшей жительнице округа Цзиси в провинции Хэйлунцзян, граничащей с российским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сполнилось 120 лет. Женщина по сути является старейшей жительницей не то что уезда Цзиси или Китая, но и мира в целом.

Кун Фаньхэ отметила свой 120-й день рождения 24 апреля. Ее недаром прозвали «мамой Цзиси» — ей столько же лет, сколько и городу. Как сообщает телеканал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Цзиси, Кун Фаньхэ — жив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города.

Последние 16 лет женщина нуждается в уходе, а до этого предпочитала жить одн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на живет у старшего племянника и его жены. Родственники отмечают, что она всегда мерзнет и спит на кане — китайской печи из кирпича и глины. Это ее давняя привычка. Сейчас Кун Фаньхэ может есть только рисовую кашу, которую для нее готовят близкие. Также она любит традиционные китайские пельмени.

У Кун Фаньхэ семеро детей: пятеро сыновей и две дочери. Все они живут рядом с матерью. А вот правнуки разъехались.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среда 19-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